

李退溪의 思想과 行動(二)**

阿部吉雄*

• 目 次 •

I. 序 - 이퇴계 연구회 설립의 취지	III. 著書
II. 이퇴계의 생애와 사상	IV. 日本 儒學의 발전과 李退溪
1. 略傳	V. 佐藤直方派의 李退溪 尊信
2. 사람됨과 생활태도	VI. 李退溪의 철학적 수양론과 日本 儒學
3. 詩文·書法	
4. 退溪學의 성격과 역사적 지위	

2. 사람됨과 생활태도

이퇴계는 온화하고 겸허한 인품에 순도 높은 美玉처럼 드물게 보는 고결하고 원만한 군자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태도는 근엄장중하여 입이 무거웠으며 또 그 말하는 법은 온건하고 성실하였다. 뜻은 고아함을 구하였고 자연 속에 생활하며 성현의 도를 즐기고, 仕宦하여 名利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가 도달한 경지는 보통 사람들이 엿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는데, 아래에 그의 사람됨과 학자, 교육자로서의 일상생활, 교육태도의 실재를 서술함으로써 그 大敎學者로서의 인품의 일단을 사모하고 그 교육의 정신태도를 엿보고자 한다.

* 전 東京大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22호(1979) 게재논문

1) 사람됨

溫容·顏子の 품격

퇴계는 맹자·程伊川과 같은 豪邁한 기백, 泰山巖巖의 기질은 없으나, 顏子·程明道와 같은 春風駘蕩한 천성에 따라 그 덕을 닦아 원만한 군자인으로 되었다.

안자와 맹자, 정명도와 정이천은 동양에 있어서의 교학자의 二大 성격으로 대비되는 사람들인데 주자는 맹자·이천의 기질에 가깝고, 그 주자를 전일하게 주로 삼은 퇴계는 천성에 있어 안자·명도에 가까워 주자와는 다르다. 주자는 안자·명도의 모든 언동을 근거로 두 사람을 大賢 이상으로 여겼는데, 천성이 높고 뛰어 났다면 안자·명도를 배우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맹자·이천을 배워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퇴계가 주자의 기질을 배우지 않고 스스로 봄의 微風과 같은 경지를 자득한 것도 천성적으로 안자의 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高弟 曹好益이 「퇴계는 참으로 『재능이 있으면서 아직 무능하다 하여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무엇을 묻고, 학문이 넓은데도 아직 무지하다 하여 淺學한 사람에게까지 물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충실하고 있으면서도 공허한 것처럼 느끼어 타인으로부터 무리한 처사를 당하고도 다투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요즈음 여러 사람들이 퇴계는 주자를 배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자를 배운 것입니다. 그 천성은 닳아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 점을 간파하고서의 말이다.

또 문인 李德弘이 「안자가 3개월간 仁의 덕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질문한 데에 답하여

안자의 마음은 혼연한 천성, 바로 그것이어서 마치 구름기 걷힌 맑은 거울, 물결치지 않는 수면과 같다. 仁의 덕을 몸에 붙이는 공부를 3개월간 계속해가는 사이에 조금도 私意에 어지럽혀짐이 없고 극히 잠깐의 사이도 게을리하거나 아무렇게나 하는 일이 없었다. 다만 극히 미미하게나마 德化가 다 되지 않은 마음의 부분이 있거나 혹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어 한 순간 仁의 덕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깐의 사이라도 仁의 덕으로부터 멀어지면 곧 살펴 알 수 있으므로 안자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음이 얼마 안 될 정도로 매우 적을 따름이다.

라고 하고, 또한 「선생께서는 仁의 덕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계실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는,

어떻게 멀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의식적으로 엄숙하게 몸을 삼가고 있을 때에는 공연히 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나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잔이라도 주고 받고 할 때 등에는 마음이 仁으로부터 멀어져 멋대로 뛰어나는 일이 있다. 이것은 평소부터 凜然히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삼가려고 하고 있는 일이다.(『言行錄』)

라고 대답하고 있다. 퇴계가 안자의 경지를 배우고자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자에게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宋學의 祖인 周濂溪(1017~1073)가 창도한 것으로 그는 「성인의 극치는 안자가 없었더라면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성인의 극치를 나타내고 만세에 가르친 사람은 안자이다.」라고 하여, 안자를 사람이 배워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삼았다.

또 정명도도 「사람은 안자를 배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 안자의 덕이 있고서야 맹자의 행동이 성인의 도로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더욱 안자의 경지를 회구하였다. 그의 말은 그 자신이 안자에 가까운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의한다고 推察된다.

그런데 퇴계가 도달한 경지는 본래 후학들이 시비를 운운할 수 없는 바가 있으나, 그 온화한 교육이 한 번 門流들에게 잘못 전해질 때에는, 온화는 변하여 유약이 되어 문약에 흐르고, 겸허는 변하여 퇴보, 소극이 되는 폐해가 있는 것을 면할 수 없다. 퇴계의 末流에도 그 폐단은

나타나 있다. 주자가, 天資가 낮으면 우선 맹자·이천을 배우라고 한 것도 결코 까닭없는 일이 아니다.

自省·謙虛

퇴계와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시종하고 또 자성의 念이 두터웠던 사람은 드물다. 그는 일찍이 문인에게 준 서간 한 통의 내용을 벽에 걸어 반성의 자료로 하고

나는 남에게 이와 같이 가르쳤는데, 돌이켜 살펴보면, 나 자신이 아직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걸어 놓고 보는 것이다.

(『언행록』 1, 李德弘錄)

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의 『自省錄』이란 서간집도 자신의 반성을 위하여 편집한 책인 것이다. 게다가 그들 문인에게 준 서간을 보면 항상 자신의 학문이나 수양의 이르지 못한 점을 끄집어내어 教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또 그는 만년에 자주 고위고관으로 임명될 때마다 송구해 하면서

평생 虛名만이 높아져 이같은 지경이 되었다 나는 누구도 속이고 있지는 않으며, 물론 하늘을 속이는 일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언행록』 2, 金誠一錄)

라고 문인에게 말하고 있다.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게을리하지 않고 쉬지 않고 강학을 계속하여 학과 덕이 함께 드물게 보는 경지에 도달한 것도 이 自省의 念·겸허한 마음이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의 教學 태도는 그의 사람됨에서 나오는 것인데, 동시에 그것은 동양 古來의 교학정신을 올바르게 發揚한 것이며, 이 태도는 특히 당시의 士人들에게 깊은 경계를 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죽기 직전에 기고봉에게 편지를 보내어 격물치지의 說과 無極太極의 極字에 관한 自說을 개정하거나, 『心經』 版本의 오자를 정정하도록 사람에게 명한 것 등, 그 쓰러진 뒤에야 그만두는 학자적 신념과 그 진지한 연구적 양심은 후학들을 감분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또한 그는 임종에 있어 門弟들과 결별하면서 「평생 잘못된 견해로 제군들과 강론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행실은 검허한 大儒의 최후의 말로서 千載에 전하여야만 할 것이리라.

强毅峻烈·道の 지킴

이상의 溫容과 검허라는 것만으로는 바로 퇴계를 운운할 수는 없다. 그는 평생 스스로를 규율하는 것이 지극히 엄숙하였으며, 출처진퇴에 대하여 가장 엄격하게 지킬 것을 지켰으며, 또 제자들에 대하여도 藹然한 운용 속에 범할 수 없는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인들의 정평이다.

특히 그는 고급의 인물과 그 학문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秋霜烈日의 태도로 임하였으며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徹底·峻烈하게 비판하였다. 朴松堂의 『白鹿洞學規集解』나 盧蘇齋의 『夙興夜寐箴註』에 대한 비판, 王陽明·陳白沙(1428~1500. 그의 學은 禪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다.)에 대한 공격의 예리함을 보아도 그 일단을 察知할 수 있다. 그는 주자의 高弟인 陳安卿을 평하여

그 마음 쓰는 법의 극히 작은 한 부분에도 결점이 많다. 그의 말에 함축이 적다고 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하고, 또

나는 가만히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주자는 程門의 사람들이 아직 개발하지 않은 바를 개발하여 문인들이 힘을 얻었으나, 그런데도 정문의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것은 마치 맹자가, 공자가 계

받하지 않은 면을 열었는데도 그 문인인 萬章·公孫丑등이 孔門의 子游·子夏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도를 전한다고 하는 한 큰 일의 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孔門·程門의 사람들이 성현의 도를 넓힌 공적이 커서 주자 한 사람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程子の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 각각의 재능에 따라 능력을 닦아 세상에 입신한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가르침을 다음 다음으로 授受하여 元·明의 세상에 이르러 유학을 지탱하고 넓힌 자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自省錄』 答鄭子中)

라고 말하고 있다. 곧 퇴계가 秋霜烈日의 태도로 先儒를 비판한 것은 실로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큰 일을 위하는 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직접 주자를 스승으로 삼아 주자를 先生·老先生이라 부르고 주자로부터 직접 道統을 계승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물론 그는 함부로 도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인 기고봉을 격려하여

이것에 의하여 붉은 기치를 일세에 세워 우리 나라에서 中絶되어 있던 참다운 학문의 주창자가 된다고 하여도 좋다.

라고 하고 있는 말 등에 의해 그가 적어도 한반도에 도의 학문을 일으킬 것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극히 명료하다.

퇴계는 한반도의 학자에 대하여는 李晦齋 정도만을 존경하여 「그 말이 마음 속으로부터 나와 도리가 밝고 바르다.」라고 稱揚하고 또 김모재·김하서에 대해서도 존경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나머지는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자 이후의 학자에 대해서도 저 『心經』의 저자 眞西山을 「朱門 이후의 제일인자」라 일컫고, 蔡九峯을 「朱門第一」이라 하고, 薛敬軒(1389~1464)을 참으로 성현의 宗旨를 얻었다고 평하였으나 吳草廬(宋末元初의 儒者)·羅整庵(明의 儒者)의 학을 비난하고 陳北溪(朱子の 門人)·王魯齋(王陽明의 門人)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곧

그는 거의 주자 한 사람에 의해 성현의 學에의 신념과 自任을 갖는 데 이르른 것으로, 의연히 스스로 지켰으며 쉽게 他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퇴계가 그 학덕을 대성한 것도 실로 이 도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 일상생활 검소한 생활

퇴계의 일상생활은 검소 그것이었다. 음식도 談泊하였고 때로 보통 사람들이 입에 대지도 않는 것을 먹고도 아무렇지 않았으며, 식사를 함께 한 友人이나 門弟는 왕왕 수저를 대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문인 김성일에게

나는 완전히 가난뱅이 성품으로 태어난 것 같다. 사치스런 음식을 먹으면 가슴이 꼭 막히는 것 같아 시원하지 못하다. 담박한 粗食이라야 위장에 좋은 것 같다. (『언행록』)

라고 하고 있다.

이 말에 의하면 담박한 것을 먹은 것은 태어날 때부터의 체질에 의한 것 같으나, 한편 仕宦하지 않고 명리에 초연하여 오로지 讀書求道 교육의 생활에 전념하려고 생각한다면 먼저 담박검소한 생활에 익숙하여야 함은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라 할 것이다.

그는 자식을 경계하는 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빈궁은 선비가 항상 당면하는 일이며 마음에 걸릴 일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평생 이 일로 남에게 웃음거리가 된 일이 많다. 그러나 마음을 견고히 하고 그 자리 그 자리에 따라 스스로의 수양에 힘써 하늘이 부여하는 명을 따르면 좋은 것이다. (『언행록』 2)

이에 의하여 그의 가정교육의 일단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곧 가족들에게도 검소한 생활에 익숙할 것과 쉬지 않는 수양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養生法

그는 이같이 검소한 생활 가운데 심신의 양생법에도 유의하고 있었다. 그가 病客이면서 70세의 天壽를 다한 것은 그 정신적 수양과 함께 그 양생법에 의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된다.

지금 宗家에 전해지는 「先祖遺墨」 가운데 퇴계 자필의 「活人心法」 1권(玄州道人 涵虛子編)이 있어 자세하게 양생의 심법으로부터 藥法 및 체조까지 설명하고 있다.(체조에는 그림과 같은 도해가 있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퇴계는 이것을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전하였기 때문에, 高弟인 柳西厓는 특히 이 방면에 유의하여 드디어는 鍊丹術(제약법)의 연구까지 하였다고 한다.

寒棲庵

퇴계가 簡素를 主旨로 하였던 것은 溪上의 생활에서 잘 엿볼 수 있다. 50세에 거처를 정한 한서암에서의 생활을 김성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생께서는 質儉을 주지로 삼아 세수대야는 도기를 사용하고 창포 잎사귀로 짠 것을 깔개로 사용하였다. 목면이나 삼베로 된 옷을 입고 새끼줄로 허리띠를 하셨으며 덩쿨풀로 짠 신을 신고 대지팡이를 짚으며 마음 고요히 無欲 바로 그것이였다. 골짜기가의 집은 柱間十餘로 추위와 더위에 당해서 몹시 지내기 어려운 곳이었으나 유연하게 지냈다. 영천 군수인 許時가 퇴계와 만나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견디십니까」하고 물었더니, 「꽤 오랜 동안 이 생활에 습관이 되어 있어 특별히 판 이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언행록』 2)

또,

농작의 시기를 어기지 않고 일하며 收支를 안배하여 불측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집은 가난하여 자주 쌀독이 비는 일이 있었다. 좁은 집은 풍우를 막기에 부족하고 살기 어려운 곳인데도 유연하게 지냈다.

(『언행록』)

라고도 보여 그 검소한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陶山書堂

60세 때에 落成한 도산서당도 정면의 길이가 3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오히려 목수가 잘못하여 크게 만들었다고 후회하고 있었다. 堂은 玩樂齋·巖栖軒으로 나뉘어 퇴계는 항상 완락재에 기거하면서 內省수련에 힘쓰고 있었다. 이밖에 隴雲精舍 7칸이 있으며 그후 안동 부자의 자제인 鄭士誠이 來學하였을 때 그 아버지가 따로 亦樂齋를 만들어 門弟의 기숙사로 쓰게 하였다. 이것이 도산서당의 舊布置이다. 서당은 낙동강에 임한 山紫水明한 터에 위치하여 俗塵을 떠나 있어 사색을 하는데 적합하였으며 또한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가 있었다.

산수의 즐거움

퇴계는 유달리 산수의 자연을 애호하고 흥취가 생기면 그 시상을 高逸典雅한 시문에 의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가 일찍이 지방관을 지망하여 단양·풍기의 군수가 된 것도 아무래도 그 승경에 마음 끌렸기 때문인 것 같았다. 도산에서는 산꽃이 활짝 크게 필 즈음에는 松林 사이를 逍遙하고 또 月夜에 배를 띄워 門弟들과 시를 읊조리는 일도 자주 있었다.

『논어』에 「仁者は 樂山하고 知者は 樂水한다」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해석하여

나는 생각컨대, 二樂(요산요수)의 뜻하는 바를 알려고 하면 인자·지자의 기상과 마음을 탐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인자·지자의 기상과 마음을 구하려고 한다면 다른 데 구할 것이 없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아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을 꺼내는 것으로 족하다. 나의 마음에는 仁智의 實(실)이 있다. 이것이 마음 속에 가득 차고 밖으로까지 퍼질 때 자연히 농도 짙게 산을 즐거워하고 물을 즐거워하게 되어 구하려고 할 것도 없이 마음에 인자·지자의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인자의 實(실)을 확충할 것을 힘쓰지 아니하고 다만 높이 솟아 나무들이 무성한 산을 보고 인자의 즐거움을 즐거워한다 하고, 混混滔滔하게 흐르는 내(川)를 보고 지자의 즐거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긋남이 심하여 구하면 구할수록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自省錄』 答權好文論樂山樂水)

라고 하고 있다.

古來로 이 장을 해석한 학자는 많으나 이와 같이 신변 가까이에서 절실하게 해석한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위의 말이 그 자신의 마음 속 깊이 몸에 밴 체험으로부터 나온 말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퇴계는 만년에 심기가 더욱더 원숙하여 이른바 인자·지자에 가까운 경지에 도달하고, 仁智가 마음에 가득차고 몸에 확대되어 산수를 좋아하고 즐거워한 것으로서 보통 사람이 산수를 즐거워한 것과는 다른 것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수양생활

그는 초년에 發憤하여 학문에 뜻을 두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베개 베지 아니하여 드디어는 몸에 병이 들었으나 50이 되려고 할 때쯤 또다시 奮然히 구도의 생활로 정진하였다. 이것은 성현의 도가 밝게 됨과 함께 도를 신봉하는 마음이 더욱 두터워지고 동시에 도를 위해 사는 사명을 더욱더 무겁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학문은 도를 궁구하고 도를 실천하는 학문이며, 그의 교육은 도를 전하는 교육이었다. 그리고 그 구도의 생활은 인간이 본래 갖는 양심(본심)을 함양하는 이른바 慎

獨(홀로 삼간다)의 공부에 가장 중점을 두어 엄정하게 행동하고, 焚香·靜坐하는 등의 생활 속에 발랄한 본심을 환기시켜 아침 해가 떠오를 때와 같은 爽快한 심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의 수도생활을 김성일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선생은 나이 더하심과 함께 더욱더 병이 깊어졌으나 학문은 더욱더 힘 쓰셨으며 도를 전하는 것을 무겁게 느끼고 계셨다. 몸가짐을 엄격하게 삼가고 본심을 보전하여 기르는 노력을 끝없이 하고, 특히 홀로 있을 때에 放肆하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몸을 경계하였다. 평생 동트기 전에 일어나 洗面整髮한 후에 종일토록 책을 읽거나 분향 정좌하거나 하면서 항상 마음을 아침 해가 떠오를 때와 같이 보전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피고 계셨다. (『언행록』 1)

靜坐·養夜氣

퇴계는 평생 조금도 怠惰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남과 있을 때거나 홀로 편안히 있을 때거나 단정한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한다. 李德弘은 그것을 「선생은 혼자서 편안히 하고 있을 때에는 종일 단정하게 앉아서, 심신이 피로하더라도 단정치 못한 모습은 취하지 않았다. 피로를 느꼈을 때에는 곧 내(川)를 바라보는 난간에 나와 기분전환을 하거나 팔뚝을 기대어 잠간 휴식을 취하거나 하셨다.」(언행록2)라고 전하고 있다. 단정한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은 것은 그것에 의해 정신이 해이해져 멧대로 되는 것을 막아 외형으로부터 본심을 기르려고 하였기 때문임에 지나지 않는다. 정좌도 또한 본심을 분명히 붙잡는 공부인 것이다.

퇴계는 또 「夜氣를 기른다」고 하는 수양법을 실행하였다. 夜氣는 맹자에 처음 보이고, 송대의 유학자에 이르러 중요한 수양법으로 되었으며, 眞西山의 『心經』에도 그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李德弘의 『溪山記善錄』에 「퇴계선생은 매일 가만히 묵좌하고 밤이 되어 쉬고, 밤

중에 일어나 야복을 입고 앉아 등불 아래 책을 읽고 새벽녘에 잠깐 쉬고는 일어나셨다.」라고 있다. 즉 밤중에 만물이 잠들어 고요하여 夜氣가 청명할 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명쾌하고 상쾌할 때를 이용하여 성현의 책을 읽고, 그 淸澄한 氣를 새벽녘까지 지속하고자 하는 수양을 養夜氣라고 하는데, 퇴계는 앉아 있던 뒤 새벽녘에 잠깐 쉬고 早朝에 다시 정좌하여 사서나 『심경』 등을 읽었던 것 같다. 김성일은 「辛酉(61년) 겨울에 선생은 도산의 완락재에 있으면서 닭이 울면 일어나 책을 한번 장중하게 읽었다. 이것을 잘 들었더니 『心經附注』였다」라고 전하고 있다.

3) 교육

溫和謙讓의 태도

퇴계의 求道생활은 진지하고 엄숙함 바로 그것이었는데 남과 응대하거나 敎導하거나 할 때에 당해서의 태도는 화기에애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온화겸양한 사람됨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순순히 문제를 이끌어 싫어하지 아니하며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문인을 마치 朋友와 같이 취급하여 결코 스승으로서 높은 데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鄭士誠은 「선생은 반드시 엄정하게 앉아서, 공연히 수족을 움직이지 않았다. 문하의 사람들과 상대함에 높은 사람결에 侍坐하는 것 같은 태도로 하여, 결코 상대를 응시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선생 앞에 나아가 학문을 받을 때에는 화기가 맴도는 느낌으로 諄諄히 敎誨하여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밝게 풀어주어 의문점이나 불충분한 점이 없었다.」(『언행록』 2)라고 하였으며, 김성일은 「門弟를 봉우처럼 대우하고, 연소자라 하더라도 이름을 마구 부르거나 「너」라고 불러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送迎의 동작이나 겸손한 인사의 방법 등에 경의를 품고 자리에 앉으면 먼저 그 사람의 父兄의 안부를 물었다.」(『언행록』 3)라고 하고 있다. 먼저 부형의 안부를 묻는다는 한 가지 일에도 퇴계의 학문

과 교육의 風格이 나타나 있다.

퇴계는 문인에게 항상 봄바람 속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으므로 문인들도 마음껏 질문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퇴계도 또한 겸허한 태도로 응답해서 결코 나의 의견을 주로 하여 그것에 얽매이는 것과 같은 일은 없었다. 그리고 문인의 천박한 질문에도 반드시 유의하여, 곧장 대답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한 위에 그것을 손잡이로 하여 순순히 가르쳐 이끌도록 하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연소자들까지도 발분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 일을 『言行錄』2에는 「선생은 학문에 뜻을 둔 자와 강론해서 의문점이 있는 데에 이르면 자기 의견을 밀고 가려 하지 않고 반드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大義에 통하지 못하고 문장의 자구에만 얽매이는 사람의 말이라도 주의해서 듣고 허심하게 이해하여 바른 방향으로 향할 때까지 되풀이하여 논의를 다하였다. 논의를 할 때에는 말은 어디까지나 부드럽게 하고 도리는 명확하였으며 의미하는 바는 올바르게 밝혔다. 가령 한둘이 아닌 사람들이 갖가지 의견을 차례로 내더라도 이야기를 혼란시키는 일이 없고 각자의 발언이 정해지는 것을 기다려 서서히 한마디 말로 줄거리를 세워 분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스스로의 발언을 절대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다만 ‘愚見은 이리이러한데 아직 시비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할 뿐이었다.」라고 하고 있다.

이상의 이야기는 퇴계가 온후겸양할 뿐만이 아니고 실로 학문적 양심에 예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태도는 위대한 교육자로서 영원히 모범이 될 것이다. 자기의 의견에 고집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바른 의리를 구하여 자기의 說보다 우월한 것이 있으면 바로 自說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시원찮게 학문한 자들이 쉽게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그래서 퇴계는 항상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는 것을 할 수 없음은 배우는 자의 큰 결점이다. 천하의 義理는 궁구하여 다함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나만이 옳고 남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언행록』 2, 禹性傳錄)

라고 가르쳐 술선하여 문인에게 모범을 보이고, 동시에 당시의 학자들에 대하여서도 스스로 좋은 모범을 행한 것이라고 평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참다운 학자이고 또한 교육가를 겸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成德

퇴계의 만년의 교육태도는 특별히 힘주는 일이나 뽐내는 일도 없이 여유있게 성현의 도에 들어가 저절로 문인에게 景仰케 하는 것을 가지고 커다란 감화를 주었다.

문인 禹性傳은 「나는 선생께 오랜 동안 출입하였다. 홀로 여유있게 편안히 계실 때나 남과 응대할 때나, 한번도 자신의 능력 같은 것을 자랑삼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없다. 또 태만하거나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이었다.」라고 술회하고 있고, 김성일은 「선생은 매일 매일의 언동에 있어 그 말은 평이, 명백하여 쓸데없이 高遠하지 않았으며, 그 행동은 저절로 禮에 합당하여 남들이 미칠 수 없는 경지에 있었다.」(『언행록』1)라고 감탄하고 있는데, 모두 그 成德의 일단을 엿보게 하는 데 족할 것이다. 「趙月川이 李德弘에게 『선생은 성현이라고도 할 만한 모습이 있다.』고 하자 덕홍은 『선생은 평이, 명백하게 도리를 설명하고 허심하게 활짝 밝게 열린 마음가짐의 사람이시다. 모습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언행록』1)라는 문인의 대화의 의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중년에 퇴계의 門에 들어온 기고봉도 성현을 대하고 있는 듯이 하고 있는데 그의 서간에 의해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機微와 極致의 開發

퇴계는 문인을 사랑하여 誠으로서 이끌었으며 항상 몸소 문인의 모범이 되어 일일이 말하지 않는 가운데 전인격으로써 문인을 교도하였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거나 혹은 붓을 잡아 인도함에 당하여는 먼저 기미가 되는 곳을 살펴 참으로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질문에 답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를 물으면 더 나아가 이것을 계기로 한 단 높은 곳과 깊은 곳에까지 미쳤기 때문에 문인들을 모르는 사이에 감동발분케 하는 일이 많았다.

이 태도는 그의 서간에 자주 보이는데 한 예로서 金富倫의 주자와 樂正子春의 말에 대한 질문에의 답변방식을 다음에 기록한다.

주자의 말에 「성인은 천하를 보기를 마치 하나의 집을 보는 것과 같이 하며, 중국의 사람들을 보기를 마치 한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이 하여 이 태도를 하루라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보이고 樂正子春의 말에 「군자는 일거수 일투족에도 결코 부모를 잊지 않는다.」고 있는데 金富倫은 이 두 말을 끌어내어 「언제까지나 잊지 않겠다고만 마음쓰는 것은 마음에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고 질문하였다. 퇴계는 이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는 것도 마땅하다.」하고는 이어 「이것은 말로는 가르치기 힘들다. 장횡거의 西銘의 주지를 숙독완미하여 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자연히 이 두 말의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컨대 인자의 마음이란 본래 이와 같은 것일 것이다. 곧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마음 써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자연히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나 나의 마음이 참으로 올바른 경지(仁)를 얻는 것을 몸으로 어김없이 체험하면 天은 父, 地는 母, 人은 우리 형제, 物은 우리 同類(西銘라고 하듯 서로 깊이 결부되어 內外遠近의 차별이 없이, 어버이를 섬기고 하늘을 섬기는 것도 하나의 理이고 보는 것 전부가 하나의 理여서 달리 개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의 작용이 분명하게 되어 他와 나(我)와의 일이 무리하게 갖다 붙여진 말이 아니라고 이해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령 참으로 樂正子春처럼 효에 오로지 힘쓰는 사람도 다만 효에 두터운 사람이라고 할 뿐인 것이다. 주자의 말은 규모가 너무 커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관계하거나 인정에서 멀어졌다고도

할 것이어서 목자의 겸애설로 흐를 것이다。」라고 교시하고 있다.

金富倫은 단순히 이 말 속에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질문하였는데 퇴계는 적절히 명쾌하게 이것을 대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도덕의 극치와 거기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着手處를 보여주고, 단순한 효자와 성현의 相違點, 儒墨의 근본차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가 하늘을 섬기는 도에 통하는 것 등을 가르쳐, 거의 유교윤리의 근본문제를 밝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곧 道義의 機微가 되는 점과 至極點을 함께 계발하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 학습에의 인도

퇴계는 제자의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기분에 학습·반성을 중히 여김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자발적인 기분을 갖게 하느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즉 그는 제자의 개성을 중히 여기고, 장점·단점을 잘 보아 자연히 發憤하도록 교육하는 데 마음을 두었던 것이다. 이 일을 高弟 鄭惟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생은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 먼저 그 사람의 지향을 보고 능력재능에 따라 각각 그 삶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었다. 학문에 뜻을 두는 것을 제일로 하고, 학문을 스스로(己)를 위해서 하고, 홀로 있을 때를 삼가고, 기질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에 뜻을 두었다. 배우는 자가 도에 뜻을 두어 誠의 마음가짐이 두터울 때에는 기뻐하여 면학을 진전케 하고, 게으른 마음이 싹트고 있는 자가 있으면 걱정하여 격려하였다. 제자를 교도하는 태도는 지성이 넘치는 것이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것에 감동하여 발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言行通述』)

師弟愛

이상의 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퇴계는 문인을 사랑하였다. 그의 서간을 보면 여러 곳에서 사제의 교분에 있어서의 진심을 찾아낼 수 있다. 柳雲龍에게 준 한 편지에도 그 문인을 사랑하는 至情이 넘쳐 있다.

전일엔 편지 고마웠네. 병이 가볍지 않다기에 늘 마음에 걸리고 있던 차에 근일에 꿈을 다 꾸었네. 웬일인지 내가 안동의 學舍에 있는데 수일간 머무르는 동안 그대의 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어 지내는 모습을 알아보려 하였네. 그런데 심부름 간 사람이 가서 그대를 만나보려 하면 병중에 일어나서 응대하게 되어 병에 나쁠 것 같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만나보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기분이 풀릴 것 같지 않아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이다가 아직 사람을 보내기 전에 잠이 깨었네. 어찌하여 이런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네.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이 와서 그 대로부터의 편지를 보여 주었네. 거기에 ‘병이 회복되었습니다’라는 말이 있고 또 湖山煙雨의 홍취에 대한 말이 있어 기쁘게 생각하였네. 그리고 나의 꿈의 까닭도 알게 되었네.

문인의 병을 걱정하던 끝에 꿈까지 꾸었다는 것으로 그의 至情이 잘 드러나 있다.

門人

퇴계의 문인은 260여명을 헤아리며 그 가운데는 재상이 된 자, 뛰어난 학자가 된 자도 10명이 되어 일시의 인재를 거의 그 門에서 배출하였다. 柳成龍(西厓)·李山海(鶯溪)·鄭琢(藥圃)은 재상의 자리에 오르고, 鄭述(寒岡)·趙穆(月川)·李德弘(良齋) 등은 학문상에서 이름을 날렸다.

退門八賢으로는 奇大升(高峯)·金誠一(鶴峯)·金富倫(雪月堂)·琴應夾(日休堂)·柳成龍·鄭述·趙穆·李德弘의 이름을 드는데 이 밖에 鄭惟一·具鳳齡·曹好益·黃俊良·李剛而 등의 뛰어난 문인도 있었다.

柳西厓·鄭寒岡·金鶴峯은 退門三傑이라고 일컬어지고 후세에 그의 자손들은 명현의 후예로서 지방에 세력을 떨쳤다. 퇴계와 병칭되는 율곡은 퇴계의 지도감화를 받고 있으나 스스로 一宗을 일으켰으므로 문인이라고는 하고 있지 않다. 奇高峯은 중년으로부터 퇴계문하에 들어와 퇴계로부터 「所見은 사람들로부터 뛰어나 있어 당대 제일인」이라고 선

조에게 추천되었으나 인물 학문에 일종의 癖이 있었다. 趙月川은 퇴계의 遺文을 수집 간행한 공에 의해 도산서원에 祭祀되었으나 덕행의 인물에 지나지 않았다.

퇴계의 문은 이와 같이 한 때 번창했는데도 참으로 그의 가르침의 깊은 뜻을 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하여지나, 각각 그 재능에 따라 師說을 계승하고 이름을 이루기에 이르고 있다. 후세 영조시대에 李象靖(大山)이 나와 문하가 한때 성하여 小退溪라고 일컬어졌으나 참으로 그에 추종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3. 詩文 · 書法

학덕 문장 검비의 교육자

이퇴계는 그 학덕에 있어 전후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문 혹은 서법에 있어서도 넉넉히 대가의 영역에 들어가 특히 한문의 서간문은 조선 제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곧 그는 興味索然한 이른바 도학자와는 類를 달리 하고 취미가 풍부한 일반적 교양이 높은 학덕 문장 검비의 교육자이다. 그의 시문과 서법에 대해 言行通述 가운데에 문인 鄭惟一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선생께서는 기꺼이 시를 짓고, 즐겨 도연명·두보의 시를 보고, 만년에는 기꺼이 주자의 시를 보았다. 그 시는 처음에는 매우 청려하였으나 얼마 안 있어 華靡를 버리고 오로지 典實·莊重·簡淡한 데 귀착하여 스스로 一家를 이루었다.

文을 지음에는 이것을 六經에 근거하고 이것을 古文에 참작하여 花와 實을 서로 겸하고, 文과 質과 中을 얻어 雄渾하면서도 典雅하고 淸健하면서도 화평하였다. 그 귀착점을 구하면 오로지 올바름(正)에 나아간다.

필법은 처음에 晉法을 잇고 뒤에 衆體를 雜取하여 대저 勁健方嚴을 주로 삼았다. 사람들이 한 자를 얻어도 보석이나 금같이 기뻐하였다. 시문의 미, 서법의 묘, 세상이 온통 본받지 않는 이가 없다. 또 덕이 있

으면 말이 있어 通材의 능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곧 선생의 餘事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죽히 선생의 경중을 이루는 것이겠는가.

참으로 간략하면서도 요약을 다하고 있다.

퇴계는 처음에 과거의 준비에 몰두하여 시문의 제작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그는 중년까지 시인, 문장가로서 지목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또 젊었을 때 마침 近隣의 燕谷리에 노닐고 물이 깨끗하게 맑은 작은 못을 보고 시를 지었다.

露草夭夭繞水涯	露草는 어여쁘게 물가를 두르고
小塘淸活淨無沙	작은 못은 청활하여, 깨끗이 모래 하나 없네.
雲飛鳥過元相管	구름은 날고 새는 지남에 본시 서로 말아 하는데
只怕時時燕蹴波	다만 두렵구나, 때때로 제비가 물결을 찰까봐.

『언행록』에는 이 시를 문인 金富倫이 「天理流行함에 인욕이 여기에 끼어드는 것을 두려워 함을 말한다」(천리 그대로의 심경으로, 욕망이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도학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것을 음미하면 高深淸澄한 絃景詩로서 그가 젊었을 때부터 비범한 시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퇴계선생문집』을 볼 때 여기에 5권, 『別集』, 『外集』에는 각 1권, 『속집』에는 2권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한글이 섞인 陶山六曲의 시조가 따로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의 시재가 尋常한 것이 아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필적도 당시에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어 궁전의 聯이나 門의 扁額에 휘호의 의뢰를 받아, 후세에 퇴계체라 일컬어져 珍重되었다. 일본에서도 그의 필적 「七先生贊」이 江戸시대에 摸刻되어 習字의 체본이 된 일이 있다.

지금 그의 필적은 『先儒遺芳』으로서 한국에서 출판되어 있다.

4. 退溪學의 성격과 역사적 지위

1) 自省修養의 敎學

주자의 단점의 교정

퇴계는 그 인격이 주자보다는 안자에 가깝고 또한 항상 의식적으로 안자를 배웠으므로 그의 교학은 극히 원만하고 온건한 것이 되어, 그 결과 주자학자들이 걸핏하면 빠지기 쉬운 결점을 교정하기에 이르렀다. 주자는 성격이 지나치게 剛強한 일면이 있어서 언행에도 그것이 반영되어 걸핏 모난 데도 없지도 아니하다. 퇴계의 金惇紱에 답하는 書에

주자는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노여움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었다. 大賢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偏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朱先生은 평생 스스로의 성격이 剛한 데에 지나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黃端明에게 머리 숙이고, 또 스스로의 마음의 치우침은 성을 내어 발근하는 것이라고 해서 矯正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또 조금 노여움을 표시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꺼버리지 못한 부분일 뿐인 것이다. 朱先生은 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노여움의 감정이 일어나면 곧 그 마음을 녹이어서 바꾸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 까닭에 감정의 편향은 언제 어떠한 때에도 반성하고 고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물며 나와 같은 사람은 여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퇴계문집』 28)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퇴계가 주자를 篤信하고 있으면서도 주자의 결점을 인정하여 스스로 편향을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문인에게도 반성하고 고치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주자의 학설 가운데 한번 誤用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의 爭議를 유도하는 素因이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의로 사람을 方正하게 한다」는 설 등은 조그만 사심도 없이 순수한 동기에 따라 단호히 남의 부정, 불선을

심판하고 바로 잡는다는 說인데 만일 自省修養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또는 강력하게 실천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명백할 것이다.

주자의 교학은 修養·正名(모든 사물의 올바른 존재양식을 명확하게 하여 벗어나 있는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經綸을 포함하는 장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학문에 따르는 자가 스스로의 수양을 아무렇게나 하고서 정명·경륜 쪽에 공을 초조하게 구할 때는 왕왕 당쟁을 부를 염려가 있다. 宋明의 봉당의 爭이나 조선의 黨禍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는 하겠으나 주자 자신의 학설에도 유래하는 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 까닭에 퇴계 자신의 성격에서 오는 그의 교학(자성의 念이 강하고 수양을 중히 여긴)이 주자학자가 갖는 일이 많은 결점을 고치는 점에 있었던 것은 주목되어 마땅하다.

半島의 積弊의 矯正

朴■의 『行略』에 퇴계의 心事를 서술하여 「언제나 군주의 덕을 輔養하고 士林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을 우선 제일 먼저의 급무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鄭惟一의 『通述』에는 「근본을 배양하여 사람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을 우선 제일 먼저의 급무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퇴계는 己卯의 사회를 최초로 하는 참담한 사회가 續發하는 시대에 있어 이 사회를 가장 미워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고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인 기고봉에의 서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나라의 선비로 조금이라도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도에 뜻을 두는 자는 많이 해를 받는다. 이것은 토지가 좁고 사람이 많으며 경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더하기를 자기자신이 하여야만 하는 일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불충분한 점이란 다른 일이 아니다. 학문이 아직 불충분한데 사람을 높은 데서 내려보듯이 한다든가 때를 생각지 않고 경세에 용기를 내는 일이다. 이것은 실패를 부르는 방법이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大事에 당하는 자가 가장 절실히

경계하여야만 할 일이다. 그 까닭에 그대가 지금 올바른 도를 행하려고 한다면 높은 데로부터 내려다 보는 것과 같은 것은 하여서 아니되며, 무턱대고 경세에 용기를 내어서는 아니 되며, 스스로의 주장만을 무턱대고 해서는 안된다. ……먼저 공자의, 배워서 여유가 있으면 벼슬하고, 벼슬하여 여유가 있으면 배운다고 하는 가르침을 자기의 행동의 規準으로 삼아 사람으로 있어야 할 일에 대해 정밀하게 추구하고, 벼슬하여서는 백성들의 근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외에는 함부로 나대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 겸허하게 학문에 마음두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성록』)

이것은 기고봉 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선비들이 조용히 스스로를 修省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뽐내기나 하고 무턱대고 경세제민에 용기를 내어, 자기 주장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사회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여, 그 積年の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자성수양의 학을 창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기고봉에 보내는 다른 편지에는,

人德이 불충분한데 무턱대고 경륜을 운운하는 것은 餽(술에 가득 담은 음식)을 뒤집어 엎어서 마구 흩어놓는 것과 같은 일이 되고 만다. 정성(誠)된 마음가짐이 불충분한데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말해서 멈출 줄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前人들이 禍에 쓰러진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대체로 이러한 데 말미암고 있다. 聖人の 학을 열심히 닦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원인을 誠의 덕이 불충분한 것에서 구하고 선비들은 먼저 誠의 덕을 몸에 붙이는 것이 급무라고 하여 스스로 自省修己의 학을 추구하고 성인의 도를 밝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퇴계는 고향의 산림에 퇴거하여 위로부터의 잦은 부름에도 사퇴하여 출사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그가 群居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학구적이었다는 데에 기인할 것이다. 또 그가 自省의 念이 강하고 겸허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사회를 두려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는 시세의 험악함을 통찰하고 한 번 조정에 나와 黨禍에 휩쓸리게 되면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知人, 붕우들까지 모두 참화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당화는 그가 중년 때 그 신변에까지 다가와서 그를 구한 友人은 그 때문에 죽고 그의 형도 또한 당화 때문에 죽었다. 저 조광조 일파의 사람들이 70여명이나 살해당한 기묘의 사회도 그가 직접 견문한 바였다. 곧 퇴계는 시세를 달관하고 기묘의 사회를 좋은 경계로 삼아 드디어 고향에 퇴거할 결의를 굳혔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퇴계는 단순히 정세를 보고 保身만을 위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세상을 버린 것은 아니다. 사회의 근원을 제거하고 도의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먼저 스스로 도를 밝히고 도학을 사림 가운데 확립하는 이외에는 적절한 근본적인 방법이 없음을 통감하여, 퇴거해서 도학에 전념하려고 하였던 것임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곧 사회를 우려하는 마음과 道에 산다는 생각의 양자에 의해서 退處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종래로 전자의 소극적인 이유만이 지적되어 왔으나 후자의 적극적인 心事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인 鄭惟一이 「공직으로부터 몸을 빼어 오래 되었는데도 우국의 念은 더욱더 두터웠으며 왕왕 학문에 뜻을 둔 자와 국사에 언급하여서는 탄식하고 감분하였다.」(『언행록』 3)라고 하고, 김성일은 「愛君愛國의 마음은 진퇴에 관계없이 언제나 가지고 있었다. 한 政令이 좋은 것을 들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뻐하고 舉措態度가 올바르지 못함을 알면 걱정되는 기분을 얼굴에 나타냈다. 그리고 언제나 군덕을 보양하고 사림을 옹호할 것을 선무로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자기의 수양을 편중하여 국가, 천하를 도외시하는 은둔자가 아님은 분명할 것이다.

다만 퇴계는 시세를 달관하고 半島 積年の 폐해를 통찰한 위에 스스로의 성향에 의거하여 특히 자성수양을 주로 하는 敎學을 연 것이다.

퇴계의 退字는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謙退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하여 그가 반도의 적폐에 대하여 산림의 도학자를 자임하고 자성수기의 학을 연 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士人들에게 깊은 교훈을 준 것이었으며, 그의 교학에 있어서의 특수한 지위는 이 점에 구하여진다고 생각된다.

2) 지위

半島의 道義哲學 창시자

퇴계는 그 학문, 덕행 및 문장에 있어 드물게 보는 경지에 도달하고, 그 덕망은 일대를 풍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대와 더불어 빛을 내어 특히 우리나라(일본)에 많은 尊信者를 냈다. 퇴계는 조선에 있어서의 최초이자 최대의 도의철학의 건설자이고 도학의 首唱者, 실천자였다. 퇴계가 조선의 주자, 조선의 제일인자로 평가된 것도 수긍된다.

김성일의 「實記」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근세의 사대부는 책을 읽는데 다만 과거를 위해 쓸모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지나지 않고 성현의 학에 관해서는 생각을 이르게 하지 않는다. 官에 벼슬하여서는 다만 입신출세만을 생각하여 깨끗이 몸을 빼야만 할 때도 있는 것을 생각치 않는다. 완전히 부끄러움도 없고,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다. 선생이 나와서 처음으로 사대부들이 사람으로서 있어야만 할 도가 지금까지와 같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선생의 風을 듣고 분기하는 자도 있었다. 선생은 때를 만나지 못하고 그 학문이 관의 시험에 채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향은 적지 않다. 群儒의 학을 집대성하고 끊어진 聖學을 이어서 다음 세대로 전하였다. 孔·孟·程·朱의 도를 환연히 세상에 밝게 하였다. 이 업적은 동방에 있어 箕子에 다음 가는 단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명리만을 추구하는 敎學界·官界의 풍조에 대항하여 처음으로 사람의 사람다운 도를 명확히 하여 도의를 숭상하고 염치를 중히 여긴 풍을 일

으킨 것은, 그 처음으로 도의의 철학을 조직한 것과 함께 퇴계의 공로로 길이 稱揚되어야만 할 것이다.

鄭惟一의 『言行通述』에도 말한다.

선생은 우리나라에 성현의 도가 끊어진 뒤에 태어나, 스승에 의하지 않고 초연히 도의 학을 터득하였다. 그 순수한 자질, 精緻한 견해, 弘毅한 마음, 고명한 학, 성현의 도를 한 몸에 承受하여 그 말은 백대의 뒤까지도 영향을 주었고, 그 공적은 先聖에 빛을 조명해서 그 학의 은혜를 후학의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우리 동방의 나라에 있어서는 오직 한 사람이다.

그가 조선 유림의 태산북두이고 수많은 儒者들 가운데 한 사람, 찬연히 빛을 발하는 사람인 것이 이상과 같다.

道學東漸史上的 선구자

이상에 더하여 동아시아의 주자학 思想史上에서 본다면 주자 이후의 第一流의 인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朝日사상 交涉史上에서 본다면 저應神朝의 王仁박사 이래 최대의 文教 공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주자 이후의 제일인인 것은 퇴계의 高弟 曹好益(芝山)이 말하는 바인데, 일본의 학자에 同意見인 자가 몇몇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주목된다. 조호익은 말한다.

주자가 돌아간 뒤 문인은 각각 받은 바의 가르침을 사방에 전수하였는데 대부분은 本旨를 잃고, 그 흐름은 차차 주자로부터 떠나 이단의 쪽으로 향하였다. 道의 正脈은 이미 중국에서 끊어져 버렸다. 퇴계는 해의 수백년의 뒤에 태어나 널리 글을 배우고 예를 지켜 敬과 義를 몸에 붙여 오로지 성인의 학에 나아가 순수히 올바르게 주자의 도를 전하였다. 우리 나라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뿐이 아니고 중국에도 이만한 사람을 볼 수 없다. 실로 주자 이후의 제일인자이다.

이 평가는 단순히 스승을 평가하는 문인의 과대평가로 치워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주자의 몰후 그 몇몇의 高弟 가운데 학을 이룬 사람은 있으나 그 후 차차 朱陸 절충의 風이 일어나 순수하게 주자의 도를 밝히고 그 도에 살려고 한 도학자는 지극히 드물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퇴계는 저 왕양명의 출현 이후에 있어서의 최초의 가장 순수한 주자학자로서 또한 주자에 阿黨하지 않고 주자의 설에 의해 도덕의 大本을 확립하고 스스로 도를 負荷하는 것을 임무로 삼은 학덕겸비의 전형적인 도학자이었다. 주자 이후의 제일인자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에 대한 이같은 평가는 일본에 있어서도 先哲이 일찍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즉 大儒 山崎闇齋는 퇴계를 주자의 高弟에 필적한다 하고, 佐藤直方은 元明의 학자보다 위라고 평하고, 幕末의 楠本碩水는 명백하게 주자 이래의 제일인자라고 단정하고 있다. 도학의 정맥이 이퇴계의 출현에 의해 東으로 옮겨지고 山崎闇齋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다고 하는 생각은 山崎派의 거의 공통의 의견이었는데 이 생각은 결코 아전인수의 論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되는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평론은 여기서는 생략하나, 요컨대 퇴계가 동아시아의 주자학 東漸史上의 제일면을 장식한 인물이라는 것을 특기하고 싶다.

II. 著 書

1. 일본에 있어서의 翻刻本과 그 원본

『天命圖說』

慶安 4년(1651)刊. 林羅山の 跋을 붙임. 퇴계의 책의 최초의 日本刻本이다. 원본은 명종 9년(1554) 퇴계 54세 때에 간행되어 있다. 인조 18년(1640)의 重刻本도 있다.

『自省錄』

寬文 5년(1665) 村上平樂寺刊. 鵜飼石齋의 訓點. 石齋는 那波活所의

문인인데 石齋의 아들 鍊齋는 山崎闇齋의 高弟이다. 조선의 원본에는 「萬曆 13년(1585) 乙酉冬 羅州牧刊」이라고 刊記가 있으며, 일본각본은 그 간기를 그대로 覆刊하였고 字體도 완전히 같다. 다만 조선본의 卷頭는 「退陶先生 自省錄卷之一」로 되어 있는 것을 일본각본은 「退溪先生 自省錄」이라고 고치고 있다. 또한 이 寬門本에 앞서 일본에서 古刊本の 『自省錄』이 출판되어 있다. 版心에 한글이 있어 아마도 조선 원각본을 복각한 것이 틀림없다. 나의 추정으로는 土佐의 野中兼山이 복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自省錄』은 퇴계가 문인에게 준 서간을 스스로의 반성에 자료로 하기 위해 편집한 것이므로 간결명료하게 그의 사상의 정수를 거의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江戸시대에 山崎闇齋를 비롯하여 많은 儒者에게 애독되어 영향도 또한 큰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빠른 세월에 亡佚에 가까운 상태로 되어 『年譜』나 『言行錄』에도 그 書名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 책의 내용이 『퇴계문집』과 중복되기 때문에 특히 단행본으로 보급하지 않았던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퇴계 자신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의한 존재가치는 크다.

『朱子書節要』

明曆 2년(1656)刊. 또 寬文 11년(1671) 黑岩慈庵跋刊, 寶永 6년(1709) 黑岩慈庵跋刊, 明治 4년(1871) 龜岡牧命順子正校刊이 있다. 慈庵은 山崎闇齋의 문인으로 訓點을 개정하고 발문을 붙여 출판하였다. 책은 주자의 서간문 가운데 학문수양에 적절한 명편 약 3분의 1을 골라서 분류하여 略注를 가한 것이다. 이른바 금언명구만을 발췌하지 않고 時候의 人事까지도 그대로 실리어 주자의 전인격을 躍如하게 하고, 또 그 師友의 情義가 얼마나 도타웠던가를 알아 볼 수 있게 하려 하고 있다. 주자는 옛 성인의 가르침의 本旨를 밝히고자 하여 四書를 들어올려 세상에 넓히려고 주석을 가하였던 것인데, 퇴계는 주자의 서간문을 통하여 성현의 정신을 밝히고 학문에 뜻을 둔 자를 발분케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 편술에는 반생의 정력을 기울였다. 대강의 완성

을 본 것은 58세 때인데, 문인 黃俊良은 이것을 『근사록』에 필적하는 명저라 하고 퇴계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발행하였다. 뒤에 퇴계 67세(1567) 때 定州의 장관 柳某가 목록 및 주석을 보완해서 출판하고, 퇴계의 몰후에는 그 서문이 遺稿 가운데서 발견되었으므로 다시 이것을 補刻하여 현재에 전하는 절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책은 조선에서 성행하였으며 일본에서도 널리 보급되었다. 주자서를 抄出한 것 가운데 이 책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한 闇齋의 비평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것이다.

『朱子行狀輯注』

日本刻本에는 異版 數種이 있다. 寬文 5년(1665) 村上平樂奇開板本, 同年 壽文堂刊本, 正德 壬辰(1712) 壽文堂刊本, 出雲寺松柏堂刊本, 無刊記頭注本, 新發田藩刊本 등이다. 모두가 校訓者는 불명인데 正德本은 淺見綱齋門流의 훈점이라고 추정된다. 또 일본에는 寬文 이전의 일본 활자본의 同書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조선본은 無刊記이나 行格字體가 같은 것으로 해서 正德本 혹은 조선본의 覆刻本일지도 모르는데 다만 조선본에는 欄外에 문자의 異同을 刻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퇴계의 저서 중 가장 많이 일본에서 보급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선에서는 流布本이 거의 없는 希觀書이다. 그것은 그 책의 내용의 大體가 『宋元理學通錄』 1에 실리어 있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출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겠으나, 일본에서는 특히 塾의 교과서로서 사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自省錄』이나 이 책의 보급 상황으로 보아 퇴계의 학문은 그의 땅에서보다 도리어 일본에 있어서 널리 그리고 깊이 강구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할 것이다.

『易學啓蒙傳疑』

퇴계 57세(1557) 때의 作. 이 가운데는 明의 韓洛苑의 설에 의해

주자의 역학계몽을 懷疑한 곳이 있다. 原書는 선조의 庚子(1600)刊, 일본각본은 明曆 3년(1657)刊, 寬文 9년(1669) 武村三郎兵衛刊이 있다

『聖學十圖付戊辰封事』

필자가 가지고 있는 한 本에는 承應 4년(1655)의 刊記가 있다. 퇴계 68세의 만년(1568), 선조를 위해 政敎의 근본에 관한 6조의 疏를 올리고, 또 『성학십도』를 만들어 進講한 것. 모두 『퇴계문집』에 실리어 있는데 이 책은 그것을 추출하여 훈점을 가한 것이다. 『성학십도』는 조선 유학계의 至寶로 존송되고 마치 경전처럼 신성시 되어서 광해군 13년(1620)에는 조정의 명에 의해 豪華本이 단행되어 있기도 하다. 또 戊辰封事도 유명하여 해주나 영천에서 단행되고 있다.

『西銘考證講義』

퇴계 68세 때, 人君은 마땅히 仁의 실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선조에게 進講한 장황거의 「西銘」의 강의이다. 『퇴계문집』 所收. 일본각본은 寬文 7년(1667) 谷一齋付識語刊, 同 8년 出森六兵衛刊, 元祿 6년(1693) 京都林九兵衛刊, 명치2년(1869) 騰妥閣刊本 등. 谷一齋는 山崎闇齋의 스승이라 일컬어지는 谷時中의 아들이다. 이 책도 闇齋의 推賞에 의하여 보급되기에 이르렀던 것일 것이다.

『七先生贊』

寬文 9년(1669)刊. 주자의 作. 이 책은 퇴계의 필적을 模刻한 것으로 아마도 아동의 서예의 體本으로 刻되었던 것일 것이다. 조선본은 매우 대형의 拓本 모양의 것이다.

『李退溪書抄』

村士玉水編. 文化 8년(1811)刊. 玉水는 山崎派의 쟁쟁한 학자로, 稻

葉迂齋에 師事하고 문하에 服部栗齋, 岡田寒泉 등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는 寬政三博士의 한 사람 寒泉의 跋, 그리고 古賀精里의 序를 붙이고 있다. 퇴계의 『주자서절요』의 분류에 모방하여 『퇴계문집』을 抄錄하여 10권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상은 일본에서 출판된 퇴계의 저서이다. 이들 책에 의하여 퇴계 저서의 精要是 모두 일본에서 출판, 보급되었다고 하여도 좋다. 또한 이것들이 闇齋派의 儒者들에 의해 많이 출판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상의 외에 이퇴계가 校刻하고 跋을 붙여 출판한 책도 2종이 江戸시대에 출판되었다.

『延平答問』

宋 朱熹編, 明 周木補編의 唐本에 이퇴계가 跋을 붙여 校刻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正保 4년(1647)에 출판되었다. 현대 중국에서는 유포본이 드물며 이 이퇴계 附跋本에 의하여 亡佚을 면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藤原惺窩가 이 책에 의해 開眼을 하고 林羅山에 전수하였으며 伊藤仁齋도 초년에 몹시 이 책을 중히 여겼고, 安岡正篤씨도 이 책에 의하여 감발하였다고 한다.

『心經附註』

宋, 眞德秀著, 明 程敏政의 附註가 있는데 이퇴계는 이것을 四書, 근사록과 마찬가지로 존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만년에 程敏政의 학이 容陸의 일 뿐만이 아니고 그 인물에도 非議할 점이 있는 것을 알고 크게 傷嘆하여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을 長文의 心經後論으로 엮어 이것을 附載하여 간행하였다. 그는 돌아가기 수일전에도 그 한자의 교정을 명하였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慶安 2년(1649) 村上平樂寺開版本에 이와는 따로이 正保 4년(1647)刊의 異版도 행하여졌다.

이상의 이퇴계 저서 9종과 이퇴계 附跋本 2종을 합하여 底本에는 先

儒들이 무엇인가 써 넣은 판본을 사용해서 1975년에 일본각판 『이퇴계 전집』 상하 2책으로 동경의 李退溪研究會에서 影印하고 있다. 서문 및 상세한 해설에는 한국문의 번역을 붙이고 있다. 이제 그 서문만을 다음에 전재한다.

2. 日本刻版 李退溪全集序

이퇴계는 한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유학자이며, 교육자이고, 한국에서는 성인으로 숭앙되어 왔다. 그의 몰후 400년에는 서울특별시의 남산 기슭에 커다란 동상이 세워지고 서울의 중요한 도로의 하나에도 퇴계로라 이름붙여져 있다. 또 近者에는 천원 지폐에 이퇴계의 초상이 인쇄되었다고 한다. 그의 生地이고 講學之地인 風光絶佳의 경상북도 안동 땅에는 그를 제사하는 도산서원이 있으며 한국의 名勝舊蹟으로, 또 한국 유림의 성지로서 찾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물론 초등학교의 교과서에도 그 事蹟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퇴계는 한국인이 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존경을 모으고 있다고 하여도 좋다.

그런데 이 이퇴계는 江戸시대의 當初로부터 그 저서가 일본에 전하여 많은 共鳴者를 내고 높이 평가되어 그 저서는 거의 출판되었던 것이다. 먼저 일본의 근세유학의 開祖 藤原惺窩는 壬辰의 포로 姜沆을 스승으로 하고 벗으로 하여 처음으로 유학을 중흥한 사람인데 그 가장 존신한 책은 이퇴계가 발문을 붙여 간행한 『延平答問』이고, 문인 林羅山에 대해서도 천하만민을 위해, 萬世를 위해, 이 책을 숙독완미하여야 함을 깨우치고 전수하였다. 藤原惺窩, 林羅山은 또 이퇴계의 著 『天命圖說』을 읽어 자기의 철학을 깊게 하고, 특히 林羅山은 통절하게 이퇴계의 학식에 감탄하여 드디어 이 책에 발문을 써서 그 간행을 도왔다.

그러나 이퇴계의 평가를 전면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선양한 사람은 山崎闇齋(1618~1682)였다. 闇齋는 초년에 이퇴계의 『自省錄』을 읽고 감분흥기하여 자기의 학문을 자득하고, 두루 그 저술을 구해 독파하고

는 그 주목할 만한 언설은 일일이 이것을 인용하여 적절한 평가를 내렸다. 闇齋의 학문은 그 근저에 있어 이퇴계의 학문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 문류에 이퇴계 존신의 풍이 전하여 그 중에서도 佐藤直方は 「조선의 이퇴계 이후로는 이 도를 負荷하고자 하는 자,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듣지 못하였다.», 「그 학식이 이르는 곳은 크게 元明諸儒의 類가 아니다.」라고 심복하였으며, 佐藤派의 稻葉默齋는 「주자 이래의 一人, 「小成의 주자, 「주자의 道統,」이라고 존송하였다. 그리하여 「공자를 배우고자 한다면 주자를 배우라. 주자를 배우고자 한다면 이퇴계를 모범으로 하고 안내자로 삼으라. 그래야만이 도학의 잡을 곳이 얻어진다.」고 하였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일본 尊皇論의 선구자 淺見綱齋나 谷泰山 등에게도 존경되어 그 저술 속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상의 山崎派와는 별도로 熊本에 大塚退野(1677~1750)의 일과가 일어나 山崎派 이상으로 이퇴계를 존신하였다. 대충퇴야는 『自省錄』을 읽고 초연히 주자의 마음을 자득하고, 『朱子書節要』를 精研하기를 40년에 미쳐서 드디어 熊本實學派의 祖가 되었다. 따라서 그 문인 藪孤山은 「百世之下에 주자의 실마리를 계승하는 자는 이퇴계 그 사람이다.」라고 하고, 幕末의 준걸 橫井小楠에 이르러서는 元明시대를 통하여 「古今絶無의 眞儒」라고까지 절찬하였다.

橫井小楠을 스승으로 하고 벗으로 하여 그 절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元田永妥이다. 元田은 「明治 제일의 공신」이라고도 일컬어지고, 明治천황을 보좌하여 明治의 교육지침 확립에 정혼을 기울인 사람이다. 그 元田이 「程朱의 학은 조선의 이퇴계에게 전하였으며, 退野선생이 그 所撰의 『주자서절요』를 읽고 초연히 얻는 바가 있었다. 내 이제 퇴계의 학을 전하여 이것을 今上황제(明治천황)에게 받들어 올렸노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보아 올 때 이퇴계는 江戸시대의 처음부터 일본의 학자에 존신되어, 드디어 明治의 교육지침 확립에까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거의 평가되지 않았던 이퇴계가 왜 일본에서만 이 이와 같이 높이 평가되었는가. 하나의 문제점이긴 한데, 그것은 잠시 놔두기로 하고 이퇴계는 江戸시대 이후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山崎派나 大塚派와 같이 인간탐구, 인간수양을 중히 여긴 철학적, 실천적 학파에 의해서 각별히 존신되었다고 하여도 좋다.

그들은 지식편중의 세상의 학문교육을 俗學이라 일컫고 공자나 주자가 참으로 목표삼은 바를 正學이라 하여 인격도야, 인간형성을 근저에 둔 「도학」을 창도하였다. 마음을 외계에 향하게 하는 것 보다는 먼저 마음을 내계로 향하게 하여 자성과 성찰과 體察을 쌓아 나가면서 항상 마음 속에 움직이는 존엄하면서도 그러나 따뜻한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이른바 우주의 생명력에 연계되는 것을 자각하여, 이것을 존속하고 기르는 것을 학문의 출발점으로 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인간정신의 존엄성과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따뜻한 생명을 자각하고 존양하는 것을 제일의로 하는 학문이라고 하여도 좋다. 달리 말하면 先哲의 書를 읽어 切己近思, 진실의 자기를 탐구하여 자기의 심혼과 기질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순화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생명의 일대환회를 손에 넣으려는 실천학이고 수양학이다.

이같은 사상이 이퇴계 사상의 大本인데 이제 이것을, 사물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第一義로 하는 금일의 학문과 비교하면 그 성격이 대체로 다른 것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조용히 생각해 보면 이것의 의도야말로 공자나 주자의 교육의 의도를 바르게 계승한 것이 아니었던가. 세계가 동양에 구하고 있는 교육정신도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학문교육이 있어야 할 모습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水脈이 중국·조선·일본을 통하여 脈脈히 전하여 왔던 역사적 사실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퇴계는 그와 같은 사상을 중흥한 철인으로서 일본의 上記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된 것으로, 그 저술도 주요한 것은 일찍부터 거의 출판되었다. 그 가운데는 『朱子行狀輯注』, 『自省錄』과 같이 조선에

서는 亡佚에 가까운 상태로 되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본에서 널리 애독되고 보급된 것도 있다. 또 이퇴계의 『朱子書節要』에 모방하여 이퇴계의 서한을 정선한 『李退溪書抄』와 같은 것까지도 일본에서는 출판되었다. 그리하여 이퇴계가 교정하고 跋을 붙인 『延平答問』, 『心經附註』의 2종을 보태면 모두 11종 46권 45책(혹은 합본되어 30책)의 다수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책은 모두 일본의 훈점을 붙여서 출판되었던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훈점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이므로 이들 책을 覆印한다는 것은 한문의 이해력이 떨어진 현대의 일본인에 있어서는 또한 각별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이퇴계의 저서에 대한 手批本, 무엇인가 써 넣은 本, 혹은 강의 필기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제 이 전집을 영인함에 당하여 특히 大塚退野의 手批本 『朱子書節要』를 넣을 수가 있었음은 다행한 일이었다. 또 마침 細野要齋의 手批本 『西銘考證講義』, 植木惺齋 手批本 『朱子行狀輯注』까지도 載錄할 수 있었다. 이들 책을 보면 얼마나 일본의 선철들이 이퇴계의 저서에 진지하게 대하고 연구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참고가 된다. 그 사이에 僭越되게도 저자 자신이 써 넣은 本인 『自省錄』을 삼입한 것은, 실은 『자성록』이 일본의 儒書에 많이 인용되고 있어 필자가 多年 그것을 탐색하여 눈에 띄는 대로 써 넣어 두었기 때문이고 학술적으로도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상의 「써 넣어둠」은 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거의 읽을 수가 없는 것도 있음을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저자는 다년간 이퇴계 저서의 일본각본을 수집하여 왔다. 그리하여 1972년 이퇴계 연구회가 동경에서 발족되었기 때문에 연구회 사업의 하나로 이것을 영인하려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용이하게 실현될 것 같지도 않아서 오히려 필자의 古稀 기념으로 일체 사비로 출판하여 그것을 서울에서 인쇄하려고 생각하게 되었

다. 그래서 동경의 이퇴계 연구회와 자매관계에 있는 한국의 퇴계학연구회 이사장 李東俊씨에게 출판의 알선을 의뢰하였더니, 퇴계학 연구원에서는 출판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同연구원에서 부담하고 그 대신 한국에서 반포하는 몫은 同연구원에서 자유로이 처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필자로서는 본래의 뜻과는 달라졌지만 이것을 이퇴계 연구회 이사회에 의논하여 그 厚志를 고맙게 拜受함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이퇴계 연구회의 활동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위를 거쳐 이 책은 출판된 것이다. 이퇴계 연구회는 이퇴계의 학문을 중심으로 동양 정신문화의 연구와 그 보급에 힘써 한 일친선의 정신적 기반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지금 그 사업의 하나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된 것은 편자로서 또 회장으로서 무엇보다도 기쁘다. 귀중한 도서의 영인을 허락해 준 內閣文庫·國土館大學 및 山崎道夫씨 그 밖에 특히 퇴계학 연구원 이사장 이동준씨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1975년 9월

3. 기타의 편저서와 퇴계전서

○『退溪先生文集』 49권, 『別集』 1권, 『外集』 1권, 『續集』 8권, 『退溪先生年譜』 3권付1권, 『退溪先生言行錄』 6권

이상은 후세에 왕왕 일괄해서 출판되어 보통 『퇴계전집』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문집』의 편집은 퇴계의 몰후에 선조가 柳眉巖 등의 말을 받아들여 계획하였으나 임진란(秀吉의 朝鮮 侵略)에 의해 중지가 되었으며, 그 후 문인 趙月川 등의 손에 의해 퇴계 몰후 31년 선조 33년(1599)에 완성되었다. 『연보』는 문인 柳成龍의 붓에 이루어진 것으로 『문집』이 된 뒤에 補刻되었다. 『속집』 8권은 6대손 李守淵이 편집한 것으로 영조 22년(1746)에 이루어졌다. 『언행록』은 正宗 17년(1793)에 각판되었던 것 같다. 이보다 앞서 權斗經編의 『退溪言行通錄』 8권이 출판되어 있었으나 錯謬가 많다고 하여 새로이 도산서원에서 이 책을 출

판되었던 것이다. 퇴계의 학술행실이 이 전집에 의하여 다 포괄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 『宋季元明理學通錄』 11권, 외집 1권, 퇴계가 주자 및 元明의 주자학자의 언행을 기록하여 자기의 考閱에 이용한 것. 未完의 擘인데 萬曆 4년(1576) 문인 조월천 등에 의하여 안동에서 간행되었다.

○ 『古鏡重磨方』 1권, 퇴계가 湯의 盤銘(大學所收)을 시작으로 하여 白居易·韓退之·주자 등의 銘·箴·贊 속에서 마음을 닦고 덕을 기르는 식량이 되는 것을 편집한 책. 萬曆 35년(1607)에 문인 鄭寒岡 등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 『心經釋疑』 4권, 심경(眞西山著)은 퇴계가 중시하여 문인에게 講授한 것이다. 이 책은 문인 李德弘·李咸亨의 筆錄에 퇴계가 교정을 가한 것. 숙종(1675~1720)은 宋時烈 등에 명하여 이것을 교정, 간행케 하였다.

○ 『三經四書釋疑』 8권, 퇴계가 삼경과 사서에 간략하게 훈석을 가한 것. 戊申(1608)년에 경상도 감사 崔瓘이 校刻하였다.

○ 『梅花詩付陶山十二曲』 퇴계는 매화를 사랑하였다. 이 책은 그 매화시와 사회교화의 견지에서 만든 俗謠(時調)를 퇴계의 필적에 의해 模刻한 것이다.

○ 『陶山記』 퇴계의 陶山記文·遂處記事 등의 시문을 그 필적대로 모각한 것이다.

○ 『大寶箴』 퇴계가 손자인 安道를 위해 서예의 체본으로 써 준 고금의 箴銘을 모각한 것이다.

○ 『朱子書節要記疑』 퇴계의 강의를 문인 이덕홍이 필기한 것이다. 사본.

○ 『語錄解』 퇴계와 柳眉巖 및 두 사람의 문인이 『朱子語類』의 難語, 難句를 해석한 것을 편집한 책이다.

○ 『四端七情分理氣說』 퇴계와 기고봉이 四端七情의 문제에 대하여 長年 논쟁한 왕복서간을 편찬한 것이다.

○ 『退溪喪禮答問』 퇴계의 상례에 관한 서간을 편집한 것으로 내용은 『퇴계전집』과 중복된다.

이상의 퇴계의 전 저서는 근년 한국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에서 『退溪全書』 4책, 『增補退溪全書』 1책으로 영인, 간행되고 있다.
『퇴계전집』에는

퇴계선생문집 51권, 別集 1권, 外集 1권, 續集 8권, 自省錄, 四書釋
疑, 啓蒙傳疑, 宋季元明理學通錄 本集 11권, •同外集, 退溪先生年譜 4
권, •退陶先生言行通錄 8권, 退溪先生言行錄 6권, •退溪先生輓祭錄,
•陶山及門諸賢錄 5권, •嶠南賓興錄 2권, •退溪先生文集考證 8권(이
상 •은 본서에서는 未소개)이 수록되어 있고, 『증보퇴계전집』에는 陶
山十二曲, 三經釋疑(詩·書·易), 李子粹語(李漢 星湖編)가 수록되어
있어, 이퇴계의 저서는 간편하게 翻閱할 수가 있게 되었다.

(안 병 주 譯)